

3.5조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클라우드·로봇자율주행 등 AI 쏠분야 지원강화

-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-

- (자금공급상황 점검) `24.5월까지 총 54.5조원의 자금이 5대 중점전략 분야에 공급되어 5개월만에 연간목표치(102조원+@)의 53.2% 공급
- (AI분야 집중지원 프로그램) 산은은 7월부터 AI 분야의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(최대 △1.2%p 우대금리 제공)
-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

‘24년 7월 4일(목),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.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`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다. 작년 6월 개최된 3차 협의체에서는 3,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신설방안을 논의하였고, 같은 해 12월 개최된 5차 협의체에서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102조원+ @의 정책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하는 등 정책금융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논의의 장(場)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【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】

- 일시·장소 : `24.7.4(목) 10:00,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
- 참석기관 : 금융위(김소영 부위원장), 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, 국토부, 특허청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 등

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현장의 자금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자금 공급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며, “작년 6월 산업부와 산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3,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발표하였는데, 이를 선례로 올해 6월 범부처 ‘반도체 대책’에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, 1.1조원+@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”면서 “선제적 반도체생태계펀드 신설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”라고 평가하였다.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이 잠재력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1. `24.5월 현재 정책금융 공급현황

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논의하였다. 산은, 기은,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총 54.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. 이는 연간목표(102조원) 대비 53.2%로서 기간 경과율을 반영한 목표집행률(41.7%)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.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“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금공급을 추진한 결과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급박한 투자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만큼 지금의 자금공급 흐름을 지속하여 우리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”하였다.

<참고: `24.1~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(단위 : 억원)>

구분	지원목표	합계(A)	年 계획(B)	집행률(A/B)
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	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	7.7조원	17.6조원	43.6%
미래유망산업 지원	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·경쟁력강화	12.0조원	22.1조원	54.1%
기존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	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	10.2조원	21.3조원	47.8%
유니콘 벤처중견육성	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	7.7조원	12.6조원	61.1%
기업경영애로 해소	3高 현상,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	16.9조원	28.7조원	59.0%
합 계		54.5조원	102.4조원	53.2%

2. AI분야에 대한 3.5조원 규모 자금공급 지원방안

다음으로,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총 3.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공급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 과기정통부 등은 지난 분기부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AI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. 이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, 산업의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프로그램과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한다.

첫째로,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‘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’ 내 AI분야를 신설하여 ‘24년말까지 3조원을 한도로 자금을 공급한다. (기존 5대 산업 분야 -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·바이오·원전 - 에 더해 AI분야를 추가) AI모델 및 클라우드,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·자율주행 영위기업에게는 최대 △1.2%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.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.

【 초격차산업지원 프로그램 6호 AI(인공지능) 】

분야	한 도	주요 내용
AI	3조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지원대상*) AI모델 로봇자율주행, 클라우드, AI반도체 영위 기업 ▪ (지원분야) 설비투자, R&D, M&A, 경상 운영자금 등 ▪ (금리우대) 최대 △1.2%p ▪ (기타사항) 운영자금 한도 확대(120%)

둘째로, 산업은행은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‘AI 코리아 펀드^{가칭}’를 5천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한다. AI 클라우드, AI모델 개발 영위 기업 등에 산은자금 1,500억원에 민간자금 3,500억원을 유치하여 자체 펀드를 조성·출시한다.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“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여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”이라고 하면서 “신속한 정책 금융 지원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【 AI 코리아 펀드(안) 】

- (펀드규모) '24년 5,000억원(산은 출자 1,500억원(30%) 이내)
- (투자대상) ①클라우드, AI 모델 및 ②AI 응용 분야 (시장반응 탐색 후 구체화)
- (펀드구조) 다수의 블라인드펀드로 출자사업 진행
- (추진일정) 신속하게 사업공고 등 실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“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.5조원 규모의 투자·금융 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”고 하면서, “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, 국민과 일상화된 AI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”고 밝혔다.

[별첨 1]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

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태 (02-2100-2861)
			주무관	김진주 (02-2100-2866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	책임자	과 장	백대현 (044-202-6240)
		담당자	사무관	주재현 (044-202-6244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	책임자	팀 장	김태형 (044-203-4230)
		담당자	사무관	안용열 (044-203-4231)
	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	책임자	담당관	김태경 (044-201-3258)
		담당자	서기관	이승훈 (044-201-4011)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조성우 (044-204-7520)
		담당자	사무관	윤도현 (044-204-7524)
	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	책임자	과 장	윤기웅 (042-481-5258)
		담당자	사무관	윤규선 (042-481-5309)
	한국산업은행 영업·투자기획부	책임자	부 장	안성진 (02-787-6901)
		담당자	팀 장	강준영 (02-787-6927)
	중소기업은행 여신기획부	책임자	부 장	이상민 (02-729-7711)
		담당자	팀 장	윤정훈 (02-729-6761)
	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	책임자	부 장	정현호 (053-430-4331)
		담당자	수석부부장	정낙원 (053-430-4650)

-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54.5조원
(산은 : 17.4조원, 기은 13.2조원, 신보 23.8조원)의 자금을 공급
- 연간목표(102조원) 대비 집행률은 53.2%로서 기간 경과율을 반영한 목표집행률(41.7%)을 초과 달성
 -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며,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자금 공급을 추진한 것에 기인
- 분야별로는 글로벌 초격차(7.7조), 미래유망산업(12.0조), 산업구조 고도화(10.2조), 유니콘기업 육성(7.7조), 경영애로 해소(16.9조) 등
- 5대 분야 모두 목표집행률(41.7%)을 초과 달성하였으며,
 - 특히 유니콘 벤처·중소 부문은 최근 민간 벤처금융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급여력 집중

<24.1~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(단위 : 억원)>

구분	산은	기은	신보	합계(A)	年 계획(B)	집행률(A/B)
글로벌 초격차	53,780	6,689	16,139	76,608	175,650	43.6%
미래유망산업	39,601	16,837	63,259	119,697	221,150	54.1%
산업구조고도화	64,599	7,043	30,361	102,003	213,460	47.8%
유니콘 벤처중견육성	10,998	13,940	52,201	77,139	126,270	61.1%
기업경영애로 해소	5,313	87,753	76,376	169,442	287,370	59.0%
합 계	174,291	132,262	238,336	544,889	1,023,900	53.2%